

# 協會運營의 오늘과 來日

## □ 순회회원작품전...성황리에 전국서 개최-회원 권익향상에 큰 도움되는 행사

다음은 지난 5월12일에 열린 회원간담회에 이어 두번째로 열린 지난 7월7일의 간담회 내용을 요약해서 옮긴 것이다.

이날 모임에서는 ① 해외업무수주확대를 위한 의견교환과 ② 협회기능 제고를 위한 방안 ③ 당면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교환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폭넓은 대담이 있었다. 그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 일시 : 1982. 7. 7일 11시

◇ 장소 : 본협회 회의실

◇ 참석자 :

具玠會(본협회 회장)

金基壽(본협회 부회장)

公日坤(공일근건축연구소)

權五周(국제합동건축설계실)

金仁坤(주·세마건축설계사무소)

金知德(주·삼화건축공단)

閔中植(내외종합건축연구소)

朴康平(주·박춘명건축설계사무소)

朴祥秀(세종건축기술단)

宋洙九(한중종합건축연구소)

嚴基哲(경일종합건축)

李揆昌(주·우일건축연구소)

李世勳(아세아합동건축연구소)

李海星(주·이건축)

張道浹(주·진한건축기술연구소)

任仁嬾(본협회사무처장)

□ 회장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회원님들과 자리를 함께 한 것은 협회운영에 대한 여러분들의 고견과 그밖에 몇가지 현안문제등에 대한 의견교환을 위해서입니다.

아시다시피 오랜 불황으로 회원여러분들의 사무실운영이 어느 때보다도 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모두가 단합해서 난관 극복을 위한 지혜를 창출해 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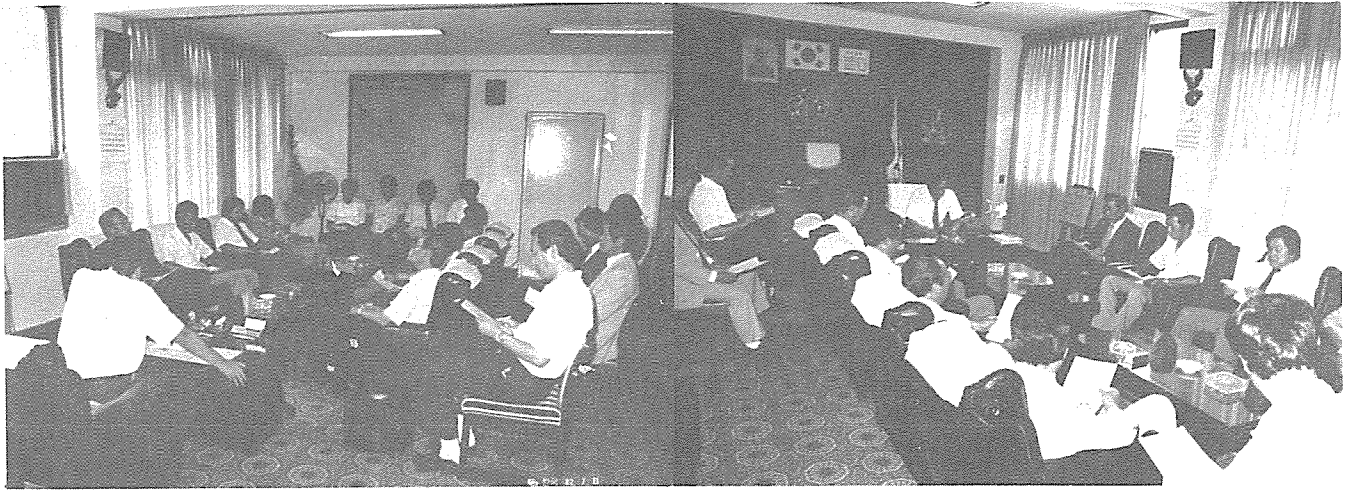
바로 이러한 일을 해내는 구심점이 우리 협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그동안 지도층 회원님들의 협회 백안시 풍조가 없지 않았으며 따라서 건축사의 지위향상이라든가 권익 보전에 적지않은 영향을 끼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러나 근자에 와서는 그러한 풍조도 많이 쇠신됐고, 협회자체도 종래에 안고 있던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진정 회원을 위한 협회로 성장시켜 나가겠다는 새로운 각오로 임직원 모두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회원여러분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현재 회원작품 순회 전시회를 광주에서 하고 있는데, 지난 6월14일부터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순으로 열고 있습니다. 우리 회원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작품을 내신 분들이야 잘 아시겠지만 전혀 무관심한 회원들도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전시회가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건축사의 사회적 지위라든가 회원권익등을 향상시키는 큰 작업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런데 무관심한 예가 많습니다.

서울 개막식 때도 건설부차관계서 나오셨고, 부산·대구 개막식에도 관계 고위공무원과 각종 매스컴에서 나왔어요. 특히 어제 광주 개막식에는 전남도지사, 교육감, 시장, 국회의원·광주일보사장·각대학장등 상당한 분들이 참석해서 광주지역의 큰 행사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이 모두 회원권익과 직결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일을 해내는 것이 우리협회가 하는 일이고, 이런 일을 하는 데에는 무엇보다 회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 협회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교환을 위해 회원 간담회가 열렸다.

협조와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우선 오늘 간담회 주제가운데 먼저 해외업무주주에 관해 이 분야에 경험이 많으신 이해성회원께서 말씀해 주시죠.

**□ 해외주주...국가적 차원서 적극 도움 필요-개인 능력으로는 경쟁서 뒤져**

□ 이해성 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해외주주에 대한 문제는 사실 시기적으로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미 중동지역 같은데서 오래전부터 해온 거죠. 제 개인의 얘기입니다만 해외주주문제로 중동에는 열네차례에 걸쳐 다녀왔어요. 헛수로는 약 4년전부터입니다만. 문제는 이런 해외주주가 건축사라면 건축사 개인의 힘만으로는 어렵다는 겁니다. 터키나 다른 나라에서는 정부가 직접 지원해서 용역업무를 따내고 있거든요.

우리는 개인의 힘만으로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아직도 역부족입니다. 각종 하자 문제라든가 모든 면에서 숙달되지 않고 있어요.

□ 공일곤 설계상에서도 그런가요?

□ 이해성 그렇죠. 계약서도 그렇고 모든 것이 타이밍이 안맞아요. 계약서 번역하는 것 하나만 해도 힘이 벅찬 형편이니까... 그동안 부분적인 것만 몇개 했음니다만 그것도 건설회사에서 소화해줘서 하게된 겁니다.

□ 이규창 단독주주는 안되나요? 가능하지 않겠어요?

□ 이해성 안되는 거야 아니겠죠. 우선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해외건설면허가 있어야 하고... 그런데도 어려워요. 겁이나서 못하겠더군요.

때문에 좋은 방법은 현지업자와 함께 해야겠어요. 합작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등록하고, 입찰에 응해서 따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각종 비용이 상당하게 들거든요. 결국 저는 못했습니다. 부득이 실적유지를 위

해 부분적인 것만 했습니다. 중동에는 우리나라 업자들이 많이 있지요. 외국인과 손을 잡고 일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결국 되질 않아요. 외국인들은 계약을 맺으려고 하거든요. 좋기는 외국인들과 손잡고 그들이 하는일을 배워야 합니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일의 순서를 우선 숙달한 다음에 뭐를 하든지 해야지...

요즘에는 다국적 건축이 많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일을 배우는 거죠.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지만 어려운 점이 많아요. 그러나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노력여하에 따라... 뭔가 남겨 놓으려고 노력한다면-

시장성을 놓고 볼 때 중동은 하향세에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나와 있고... 자유중국은 7,8년전부터 손을 뺐치고 있거든요. 우리도 국가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당분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多國籍건축 많아...외국 업체와 손잡을 수 있는 능력 배양 절실히 필요한 때**

□ 회장 네, 결국 정부가 뒷받침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어렵다는 견해시군요.

□ 이해성 그렇습니다. 우선적으로 필요한 자금지원같은 것도 우리는 못 받잖아요.

□ 회장 협회가 나서면 되겠지요?

□ 이해성 그렇죠. 새로 부회장님도 오셨으니까 협회에서 추진한다면 이것도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많은 연구와 검토가 있으시겠지만... 부탁드립니다.

□ 부회장 해외주주문제는 지난 70년초에 건설분야의 적극적인 진출문제를 제도적인 측면에서 연구검토가 되기 시작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각종 해외시장정보, 자료수집, 각국의 제도와 사업계획등에 관한 사전연구가 필요했지요. 그후 차츰 업체에서 나가 개척하고 따라서 제도적인 보완책도 마련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해외 용역분야에 있어서도 어떻게 해외시장에

접근해야 하느냐 하는건데, 우선 시장을 알아야 하고 또 각종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해야 하며 자료등을 보완해야겠죠. 그 다음에 언어장애를 해소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등을 강구하는 순서로 풀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 우선 해외 기술용역업체와 합작관계를 맺어야 할 것 같아요.

□ 이해성 기술용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KOCC (해외건설주식회사)에서 합작으로 회사를 만들려고 했어요. 해외면허를 가진 10여명이 몇번 모여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안되더군요. 이용할 자금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을 못잡아요. 어디에 어떻게 돈을 쓰느냐 하는 것도 문제거든요. 좋은 방법은 외국인 전문가를 고용해서 일을 맡기는 방법이 좋을 것 같더군요.

#### □ 회원 개인 힘만으로 갖추기 힘든 여건 협회서 주선해야...해외수주 제반조건

□ 김인곤 저는 슈베일 비지네스센터를 한적이 있었는데 서류가 오고가는데만도 시간이 무척 걸리더군요. 입찰에 응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우는 연건평으로 따져서 비용이 산출되지 않습니까? 한테 그네들은 그게 아닙니다. 맨파워(Man-power)로 따져서 계산을 해요. 예를 들면 1급 기술자가 몇명이 며칠간 하는 일인데 그 비용은 얼마다, 또는 기타 인력이 얼마나 필요하고 그 시간은 어느정도 들고 따라서 필요한 비용은 얼마다 하는 식입니다. 입찰서를 그런 식으로 제출하는 거죠.

또 기술적으로 구조계산은 미국의 어느 지역, 즉 지진등을 감안해서 그와 비슷한 어느지역에서 쓰는 구조계산 기준대로 해야 하고, 또 창문은 독일의 어느방식을 써야 한다는 등등 도저히 영세한 건축사들로서는 해결하기 힘들게 주문이 까다롭거든요.

어느 한 개인이나 작은 업체서는 해외수주를 하고 싶어도 그런 자료(ACI Cord 등 각국의 예규)나 규모가 없거나 작아서 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바로 이런 문제, 즉 해외기술 자료라든가 세계적으로 쓰이는 규격, 또는 각 시스템도 마스터해서 자료를 정리 보완하는 제도를 협회에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원들이 해외에 진출한다든지 할 때 필요한 자료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한다면 꽤 다행이겠습니다.

□ 이해성 문제는 해외수주관계는 국력과 비례하는 것 같아요. 따라서 국가에서 투자를 하면서 우리가 참여해서 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더군요.

약간 다른 얘기인데, 우리나라 건축사들의 인건비가 너무 올랐어요. 미국등지와 같은 수준입니다.

이것도 수주를 하는데 다소 지장이 되는 요인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우리 인건비가 너무 비싸다는 거죠.

또 전반적으로 봐서 해외수주해서 돈벌겠다는 것은 참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영세한 우리 실정으로는 우선 자금 염출도 어렵고... 그 기금을 어떤 기관에서 보완해주는 방안등이 강구되어야 할 줄 압니다.

해외수주로 채산 맞추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서 중동에도 현재 5개 정도의 외국회사들만 활동하고 있어요.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 김인곤 역시 해외수주를 위해서는 현장으로 가서 해야 하지만 여건이 허락되지 않고, 여러가지 기술적인 자료가 없으니까 시방서를 쓸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국내에서만 하기가 어려운 형편인데, 기초자료에 대한 준비와 언어라든가 현장 적응력을 길러야 합니다. 협회 차원에서 할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 회장 협회가 공신력을 가지고 정부와 협의해서 나가야 한다는 말씀인데...

현실정에서 건축사들이 해외에서 외화를 버는데 여러가지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말씀하셨다시피 협회에서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엔지니어링에 관한 말씀인데, 엔지니어링 회사를 하려면 건축사 20명 이상은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어요. 또 대형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도 필요합니다.

지금 실정은 말만 대형화하고 실제로는 명의대여 행위만 하고 있거든요. 이런 현상은 적극 배격해야 합니다. 또 각성해야 할 문제죠. 이런 문제등은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지덕씨께서 한말씀 하시죠...

#### □ 海外設計用役委員會 만들어 협회에서 정보·자료 등 갖추어 시스템화에 앞장서야

□ 김지덕 우리가 해외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로 폭을 넓혀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건축교육문제도 수정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무실 운영도 폭을 넓혀 수용태세를 먼저 갖춰야 됩니다. 현재 건설분야는 지원이 많은데 비해 설계사이드는 전혀 없잖아요. 규모도 작고 적극적인 노력도 사실 구체적으로 없으니까 해외진출을 못한거죠. 이제부터라도 만들어야 합니다.

또 시공회사들도 우리가 영세하니까 일꺼리를 안줘요. 이런 문제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협회차원에서 방안을 마련해야 할 줄 압니다.

한마디로 국가적인 계획없이서는 우리가 국제적인 용역수주를 계속 못하고 맙니다. 10~20년의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지금부터 방안을 강구하면 결코 늦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사실 건설은 삽과 곡괭이를 가지고 돈을 벌지만 우리는 연필과 머리로 하는게 아닙니까—, 개인이 하려면 어렵지만 협회가 발판을 만들어서 규모를 갖춰 대처하면 결코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 이해성 얘기가 나왔으니깐 이 자리에서 위원회 같은 것을 만듭시다. 장래를 위해서 대처해 나가는 방안을 위원회에서 연구 검토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 회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해외설계용역 위원회로 한 다거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참여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말입니다.

**□ 사무실 대형화 위한 제반연구 바람직...국제화 위한 선결 조건**

□ 김지덕 우리 역시 앞날을 위해서도 시스템화해야 할 줄 압니다. 조직도 그렇고 사무실도 영세하잖아요. 차츰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정리를 해서 건축사지에 기고하겠습니다.

□ 회장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여러 회원님들 나름대로 좋은 자료라든가 아이디어가 있으면서도 서로 교류가 되고있지 않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제 위원회도 구성하고, 아울러 각종 정보를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채널 마련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사지를 통해 발표도 하고... 협회운영에 대한 기고도 바랍니다.

다음분 말씀하시죠.

□ 박강평 우리로서는 해외일은 하고는 있지만 제가 담당이 아니어서 별로 드릴 말씀이 없군요.

□ 회장 지난번 건설인의 날에 리셉션 자리에서도 대통령각하께서도 강조하시더군요. 지금까지는 시공만 했으나 이제는 시공뿐만 아니라 설계도 우리가 해야한다고 말입니다.

절실하게 느껴지더군요. 이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건축사들의 자질을 낮게 보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다만 여건이 여의치 않아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뿐이지... 김지덕씨가 많은 활약을 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협회가 위원회를 구성한다거나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해외진출의 폭을 넓혀 후진들도 진출할 수 있도록 발판 조성에 노력한다는 것을 결론으로 하고 이제 해외수주문제는 이상 얘기를 마치고 다음으로는 협회기능에 관한 문제를 다루보기로 하죠.

□ 이해성 협회기능에 대한 말씀을 하기에 앞서 먼저 협회기능에 어떤 부문이 있는가를 사무처장께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얘기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 사무처장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협회기능은 지금까지 해온 기능 외에 건축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협회기능보다 조사연구분야를 확대 강화한다거나 나가서는 용역 또는 도시설계도 협회가 주축이 되어서 처리 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앞으로 협회 임원도 대폭 늘어나고, 준회원(3600명)제도도 생길 예정으로 있는데 이에 대한 권한이라든가 제반 문제에 대한 의견을 주시사 하는 겁니다. 물론 정기총회에서 정식으로 다룰 문제지만... 그에 앞서 여러 회원님들의 의사를 종합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또 지금까지는 협회예산제도가 통합예산으로 운영되어 왔는데 앞으로는 지부자율예산도 검토해야 할 단계가 아닌가 하는데도 좋은 의견이 있으실줄 믿습니다.

□ 회장 예산관계는 잘 모르실겁니다. 한마디로 통합예산은 중앙집권제라고나 할까요, 중앙에서 즉, 협회본부에서 모든 예산을 총괄해서 운영해 왔는데 이제는 지부 자치제로 해야하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물론 지부에 따라 사정이 다릅니다만 원칙적으로 지부 독립예산에 의한 자율화가 바람직 하다고 여깁니다.

예산제도에 대한 의견보다는 다른 의견이 많을것 같은데...

**□ 회원 설계사무실운영에 대한 각종연구 필요... 협회서 체계적 연구발표 필요**

□ 이해성 예산문제는 사무처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기능상 좋은 방향을 택해야 하겠죠. 또 기능가운데 윤리위원회의 기능이 협회에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강화해서 부조리를 척결하는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 협회는 학술연구등 연구사업은 학회에 맡기고 사무실운영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연구를 한다거나 보수요율문제, 감리문제 또는 보험제도등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연구해서 회원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설계사무실운영을 학교에서 과목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런것도 우리가 입수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무실의 규모라든가 운영에 변화가 옵니다. 미국의 대형화 개념과 우리의 개념이 달라요. 미국은 동업화 한거죠. 각자가 주식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어요.

□ 회장 네, 다음분 말해 주시죠.

□ 송수구 여러가지 협회운영에 어려운점이 많겠죠. 17년간 쌓인 병폐가 하루아침에 척결되리라고는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협회가 좀더 능동적으로 우리 건축사들을 이끌어 나가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두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우선 우리 회원들, 즉 건축사들이 자각해야 한

다는 겁니다. 벌써 언제부터 왜, 부조리를 척결해야 한다는 말이 귀가 아플 정도로 들렸는데도 아직도 들려온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자각이 안됐다는 거겠습니니다.

두번째로는 협회가 리더십을 마련해야 합니다. 말로만 협조, 참여만을 되뇌일 것이 아니라 참여하지 않고 협조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유도하는 계기를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서도 강력하게 조치해서 각종 부조리, 도장포따위를 쓸어버려야 할 줄 믿어요.

### □ 아직도 남아있는 부조리... 회원 스스로 자각해서 없애야 할 시점

□ 회장 네,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뜻이겠습니니다.

□ 송수구 여러가지 방안이 필요하다고 할까요... 문제는 지식인인 우리 회원들이 솔선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해야 합니다.

□ 박상수 저는 세무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는데, 여러가지 애로가 많더군요. 사실 세무서에 가서 말 한마디도 못하고 돌아서는 일이 있는데, 정해진 보수요율을 그대로 못받으면서도 세금은 꼬박 다 물어야 하는데 사실은 이러저러해서 세금이 과중하다고 말해 봤자 설득력이 없어요. 결국 현실과 다른 이런 일들이 어떻게 다소나마 해결될 수는 없는건지...

요즘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약사들에 관한 문제만 봐도 약사회에서는 로비활동등을 해서 얼마든지 주장을 관철시키기도 하는데 우리협회는 왜 그게 잘 안되는지... 그들이 부럽더군요...

일본은 사무실간에 단말장치가 되어 있어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이를 통해 금방 알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왔더군요. 장래를 생각해서 이런것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 우리 법(건축사관련법) 만드는데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 부회장 세울문제는 타업종의 세울과 비교해서 조정할 수 있는지를 자문세무사와 협의해서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 이규창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협회 내적인 기능도 중요하지만 보다는 대외적인 협회기능도 강화해야 할 줄 믿습니니다.

지금까지 각종 건축관계 법규가 개정되는 과정에서 과연 얼마나 협회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당국과 대화를 나눴는가 하는 겁니다. 한가지 예로 지난번에는 항간에 공무원 7년 하면 건축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준다는 등

의 말이 있었던 걸로 들었는데 이런 얘기도 사실이 어떻든 간에 협회가 규명해서 사전에 대처하는 기능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건축사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관계법을 개정하는데 우리의 의견이 반영 안된다는 것은 협회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하겠죠.

지난번 동아일보를 통한 PR같은게 상당히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예산상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런식으로라도 대외 이미지제고에 힘써야 할 줄 압니다. 어떤 결과가 없다는 것이 아쉽습니니다.

또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사무실 대형화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사실상 대형화는 파트너 쉽이 필요한 것이지만 대표만 많은 것이 대형화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협회가 앞장서서 움직여줘야 할 것입니니다.

### □ 홍보활동 적극화 해야... 여러가지 방안 강구하고 예산 쪽 넓혀 광역화 할 때

□ 회장 좋은 말씀입니다. 한데 공무원 7년하면 건축사 운운 문제는 사실과 다릅니다. 다만 건축을 공부한 건축직공무원으로서 소정기간을 공무원으로 봉직한 사람에 한해서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을 준다는 애긴데 그게 와전된 겁니다.

또 법개정에서 우리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우리 협회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앞으로도 하나하나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보다 확실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대외 홍보도 아시다시피 예산상 어려운 실정이지만, 그러나 회원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결론인 이상 폭을 넓혀해나가도록 홍보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밖에 회지관계도 예산부족으로 여의치 않게 나오고 있으나 예산이 더 들어도 효과가 크다면 역시 밀고 나가겠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작품전도 연 2회정도로 해서 종합작품전과 주택작품전으로 나누어 해야 합니다. 국민홍보를 위해서도 건설부에서 바라는 것이 주택작품전시거거든요. 또 건축사들의 지명도를 높히는 활동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 이세훈 저는 번두리에서 절실하게 느끼는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다른 분도 말씀하셨듯이 세금낼 때 말을 못할 정도입니다. 어떻게 설계비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보문제도 좀더 폭을 넓혀서 집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본에서 건축사명단이 나온 책을 샀는데 아주 자세하게 만들어서 시판을 하더군요. 우리도 그렇게 해서 시판하는 방법도 PR의 한 요령이라고 생각합니다.

□ 민중식 저는 보조사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학교를 졸업하기가 무섭게 시공회사쪽으로

다 가버리고 마는데, 이런 원인은 따지고 보면 제도때문인 것 같아요. 제도상 5년이나 7년으로 묶어 놓고 있으니 설계사무소에 누가 오려고 하겠습니까.

예전에는 사명감 이라고나 할까... 그런 것도 있었으나 요즘엔 전혀 없는 실정 아닙니까. 사실 대학출신 보조사가 있는 사무실이 불과 얼마나 되겠습니까, 좀더 그 원인을 분석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협회에서 세워줘야 할 줄 압니다.

**□ 후진 위한 구체적 배려 필요...大卒者들의 설계사무소 기피현상 근본 대책 수립해야**

□ 회장 시기적으로 적절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이 문제는 아주 절실한 문제로서 공청회를 연다거나 해서 대담하게 시도해서 해결방법을 모색해야 할 겁니다.

두고 보시면 알겠지만 5년내로 공업학교 출신들이 대학 건축과 나온 사람들을 지시 감독할 겁니다.

□ 권오주 그들이 설계사무실에 오지않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 대형화가 안됐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시공회사와 비교해보면 설계사무소는 영세하기가 짝이 없거든요. 보수면에서도 그렇고...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올 수 있는 여건을 우리 기성인들이 만드는 작업도 선행되어야 합니다.

건축과를 나와서 사우디 한번 다녀오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간파할 수 없는 일입니다. 회장님이 말씀하신 공고출신이 대학출신을 지시 감독하는 것은 이미 그런 상황에 와있는 형편입니다.

□ 김인곤 역시 대형화는 필요합니다. 대형화 방법은 건축사가 10명이든 20명이든 함께 주식을 나눠가지고 일하는 방안이 좋겠고 또 감리문제인데, 우선 효율도 가지가지인 형편이잖아요. 이걸 빨리 조정해야 할 겁니다. 사실 감리가 어려운 건데... 책임 소재도 있고, 보험제도도 연구해야 하겠죠. 어떤 영속성있는 방안을 협회서 마련해야 합니다.

□ 회장 대형화에 따른 조직이라든가 운영방안 등을 연구하겠습니다. 또 감리문제도 스터디해서 조속한 시일안에 정리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상수 저는 보수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거에서 나온것과 우리협회것과 차이가 나더군요. 우리것이 높게 책정이 났는데 관청에서는 아무래도 과거것을 적용하거든요. 특히 소형건물 같은 것은 과거것을 도저히 따를 수 없어요. 조정이 필요하고...

또 지하저수조나 정화조 설치 같은것도 건물용도에 따라 크기나 시설규모가 달라져야 하는데도 거의 일률적으로 통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것도 현실성있게 조정하는게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 회원이 참여하고 협조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유도할 책임 협회에 있어**

□ 이세훈 한마디 제 소견을 더 말씀드리면, 시험제도에 관한 것인데, 건축이라는 것이 손재주만 가지고 잘 그리기만 하면 되느냐 하면 절대로 그게 아니거든요. 그외에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루 갖춰야 건축사로서의 역량을 발휘하는것 아닙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그래서 건축사시험은 한 1주일간 잡아서 논문도 써보고 구술시험도 봐야 할 것 같아요. 무슨 학력을 따진다는게 아니고 기본적인 교육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백년대계를 위한 교육이 부실하다면 큰 문제가 아닙니까. 로마도 교육 부재로 멸망했듯이 말입니다.

□ 회장 네, 원천적인 얘기죠. 여러가지 말씀 고맙습니다. 결국 우리가 자각하고 열심히 해서 새로운 건축사상을 정립하도록 해야겠고, 협회도 회원을 위한 회원의 협회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를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해결하느냐 하는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단결해서 협력하느냐에 그 성패가 달려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오랜시간 대단히 감사합니다.